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복된 장맛비로

축축이 적셔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산 사면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만방에 새벽 동이 틀 것이다!

마침내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의 산 사면 모든 곳을 통치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스겔 34:26)

목자들의 적은 모습을 보며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겔 34:1,3,6,18,19)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먹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다.(겔 34:10,12,13,16)

I.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리라” 모든 열방 앞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마 5:3,4)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1) **교회의 신성**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요 1:48,49; 시 1:3)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창 12:2)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지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추수의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이다.

(2) **교회의 개인성** “내가 저들로 복이 되게 하리라”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할 것을 분명히 주셨다.(행 9:4~6)

(3) **교회의 발전성**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한 교회의 발전이다. 교회의 범위는 한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자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산 사면”을 향하여 복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산 사면의 범위도 각 기관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퍼져나간다.(요 16:23) 우리 교회의 산 사면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결코 끝없이 없는 복이 축복할 수 없을 만큼 번쳐나갈 것이다.

II.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단비를 부어 주시고 구원을 내려주시기 때까지는 모든 것이 허사다.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겔 2:5~8)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견을 버리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릴 때에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들은 교회를 향하신 귀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 교회를 향하신 이 약속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복된 약속이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다.(갈 2:20)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가 되었다. 사랑과 친절과 온유의 띠를 띠고 거룩한 찬호를 외치자.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행하실 것이다.(사 41:14,15) 오직 우리는 힘을 합하여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행 1:8)

3월 교회 행사 일정

3일(토) 단기선교 1일 수련회(2차)

4일(주) 제2차 성찬식(1부~5부 예배 시)

제4차 CMTC 훈련(1)

7일(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소요2부 예배 시)

11일(주) 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제4차 CMTC 훈련(2)

14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회, 소요1부 예배 후)

소요 성경공부 개강(오후 3:00)

정기당회 및 일꾼 선출(소요2부 예배 후)

17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오후 2:00)

25일(주) 공동의회(4부 예배 후)

다음 주일(3월 4일), 제2차 성찬식 주일 1부~5부 예배 시에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2월 21일~4월 7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 나에게 그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영광만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같은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 예배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요 6:56) 사순절기 중에 행해질 제2차 성찬식을 통해서 참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영적 기근이 해결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득찬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25일), 제1차 학습·세례식이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유사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FAMINE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God,
“When I will send a famine on the land, Not a famine for bread or a thirst for water,
But rather fo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Amos 8:11)***

Very few people here today have experienced long term food shortages. You may have heard about them but most of you have never had to live and suffer through one. A lot of people today, especially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re facing terrible famines. So many humans are striving for basic sustenance without success. Our country is currently economically sound and politically stable, but conditions can change. Egypt experienced seven years of great abundance, then seven years of famine that made the people completely forget about the good times.(Gen. 41:29~31) In today's Bible verse, God told His people that He was going to send a famine on the land, not a famine for bread or a thirst for water, but rather fo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This is not a statement made by real believers, but by God Himself. All the churches and their members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hear the word of God. A very horrific time was about to enter their lives. Right now, we can fi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churches, but we cannot find the gospel, the word of God, because of famine. Christian believers cannot reach to the ends of the world with the word of God because they do not have it. There is a famine! It is so sad. God's chosen people killed Jesus because they did not have His word in them.(Jn. 8:37) Where is the famine today?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 is a famine. Without the word of God, there is no life. When many of Jesus' followers withdrew, He asked His disciples if they wanted to go away also.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words of eternal life."(Jn. 6:68) The Holy Spirit told the apostles, "Go, stand and speak to the people in the temple the whole message of this Life."(Acts 5:20) The church is an organization within a community that allows meetings for fellowship, and in real life most of them are a disaster. Preachers are not preaching the word of God and congregation members are not living the word of God. The church is experiencing a great famine, and people are starving. Churches and families are breaking down all over because of division. The church has to have the word of God. When people read the Bible their life becomes rich.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 is a famine. Without the word of God, there is no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Jesus said,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and great was its fall."(Mt. 7:24~27) The word of God is a firm foundation, and Jesus is its cornerstone. Peter told Jesus,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Mt. 16:16) Jesus responde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Mt. 16:18) The church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Right now, many churches emphasize culture, ignoring the word of God and concentrating on human conditions. They are human centered not Christ centered, which is why so many souls are dying. When you neglect the Bible you starve souls and the result is a famine. If a church is built on the word of God, then it has Jesus Christ as its tremendous power.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 is a famine. Without the word of God, there is no real faith. 1 Peter 1:23~25 says,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seed which is perishable but imperishable, that is,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For all flesh is like grass and all its glory like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lls off,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Amen. Listen to the words of 1 John 5:4&5,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Finally, Romans 10:17 says,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Are you hungry for the word of God? Come to Jesus Christ, and keep the word of God in your heart. If you do this, you will be rich. 2 Corinthians 8:9 says,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Today is the second Sunday of Lent; please think about our church in your heart. Are we in a famine? We have bread and money, but do we really have the word of God? 

다음 주일 설교

기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11)



김성관 목사

말씀이 없는 기근

근래에 와서는 긴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은 종종 접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힘든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7년 동안 풍작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7년간의 가뭄은 그 풍성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창 41:29~31)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일이 이제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도, 주님의 말씀도 없는 것을 봅니다. 이미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령 기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 8:37) 오늘날 기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물러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요 6:68)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행 5:20)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제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주선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대부분은 멸망당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대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와 가정들이 불화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기초가 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견고한 기초요, 예수님은 그것의 모퉁이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현대의 문화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영혼을 주러 죽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 굶주림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23~25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둔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야벳. 요한일서 5:4,5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마지막으로, 로마서 10:17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부요한 참 교회

주님의 말씀이 갑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9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양식과 물질이 풍부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참 교회입니까?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2. 21.)

회개(요엘 2:12,13)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이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격과 노력, 지식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만족시켜 줄 하나님을 만드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을 2:12)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렐 4:1) 지금까지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장 믿고 의지하였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자. 대신에 금식하여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을 2:13)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온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무엇인가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자신을 살피자.

회개는 참회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참 회개는 이전의 지은 죄를 참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였다. 이국과 그들은 모두 모여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다.(민 14:1)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민 14:4) 이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였을 뿐이다.

신앙의 방향이 확실한 근거를 잡아야 한다 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돌아임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호 6:1,2)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를 향해야 한다.(호 14:1,2)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참 회개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본은 말씀이다. 말씀에서부터 참 회개는 시작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 매 세상이 저회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요 17:14) 예수님께서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셨다. 세상은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다. 세상에서 이것을 찾으려 했을 자 결국 남는 것은 세상의 터러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일 뿐이다.(고전 4:11~13)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순간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을 방지할 때 결국 우리는 미발(고전 4:9)에 처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매순간 무의식이 우리를 조종하기에 더욱더 십자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바뀐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참 회개는 모든 것을 바꾼다. 참 회개를 하였든 바울은 술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였다.(고후 11:23~30) 십자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유익하고 하였다.(골 1:20) 이처럼 참 회개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요일 2:15,16)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요일 2:17) 참 회개를 하였는가? 그렇다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병의 병기가 되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롬 6:12,13) 매순간 자기 안에 억사하려는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금방 살려나 것이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서 죽자. 매순간 죽지 않으면 영광의 길을 갈 수 없다.(롬 7:22,23)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자.(갈 5:17)

참 회개는 참회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여 말씀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같은 참 회개가 있을 때 모든 것은 바뀐다. 이제 참 회개를 실천하자. 매순간 의식과 무의식 중에 찾아나는 죄성으로 인해서 매번 넘어지겠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갈보리로 나아가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산 3173)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행정위원회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헌의 성도님들의 중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많은 위원회를 가운데 하나인 행정위원회도 살아 있는 보혈의 유기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일꾼들은 매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기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매우 바쁜 공생애 기간 중에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따라서 충헌의 모든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같은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의 행정은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는 유지·통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에 속한 충헌기도원, 충헌동산, 충헌어린이집, 충헌복지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교회에 추진 중에 있는 안료원, 수양관, 남굴시설 및 교회 외벽 보수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정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5대 목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교회학교를 통하여 양성된 천국일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온 땅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질서를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교회 내에서는 서행(5km 미만)해 주시고, 회관 앞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전면주차를 하여서 정해진 지역에 주차하십시오. 현재 교회의 주차 수용한계는 1천여 대 정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할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놓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은 상태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 또는 불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행정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행정과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 행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골 4:15)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행정은 항상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기에 직원, 교역자, 찬양장임자 등 120여 명의 일꾼들은 매일 모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영적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의 부속한 일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고 문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552-8200)를 주시거나 사무국(제1교육관 1층)으로 오셔서 친절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골 1:25)



김홍연(정로, 행정위원장)

“아,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구나!”

중등2부 1팀, 2팀

- ▶ 처음에는 선교지에 와서 불상을 보았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큰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고 느꼈다. (한준식)
- ▶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셔서 그 나라가 불교도가 96%가 아닌, 기독교인이 96%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박선규)
- ▶ 처음 선교를 가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전도지를 같이 읽었을 때 ‘아!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고 느꼈다. (이정민)
- ▶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한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가 비웃으면서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순간 화가 났지만 더욱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조하근)
- ▶ 선교지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몰랐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전도를 했다. (이원진)
- ▶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힘들어 했던 이유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다. (보병)
- ▶ 왜 눈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했는지? 왜 내 의지를 꺾지 못했는지? 왜 그 귀한 주님의 선교사가 진심으로 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고백한다. 내 죄와 사탄에게 내어준 내 마음, 십자가의 복음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은 것을 정말로 주님께 회개한다. (가성필)
- ▶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는 또박또박 따라하였지만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에 와서는 고개를 흔들며 손 모으기를 거부하던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 땅에도 주님의 교회와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김성희 교사)
- ▶ 시골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병으로 불편했던 청년, 강가에서 만난 많은 젊은이들, 식당과 과일가게 주인과 종업원, 기사 등 만났던 많은 영혼들의 선한 눈이 눈에 선하다. (김희동 교사)
- ▶ 어눌한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순간 영적전투를 개탄해 하셨으며,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최병철 교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우리 팀의 사역지는 이제 막 개발이 한창인 신도시 같았다. 첫번째 마을에 들어가 정팔할 때 파출소가 앞에 있어 그냥 돌아와야 했다. 만나는 사람들도 강박하여 문전 배대하기 일쑤어서 작은 실망감과 두려움이 생겼다. 그 날 경전회와 평가회를 통해 우리의 믿을 없음과 기도의 부족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다음날부터 시시때때로 서로 기도하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맡기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사역은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병당한 영혼들에게 더욱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산간마을에서 한지 앞도 보지 못하게 하던 길은 언개가 서서히 길하듯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순전 한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영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

었다.

넷째 날 선뜻 우리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주며 힘든 선교여행을 걱정해 주던 젊은 부부를 만나 정말 기뻐했고, 복음을 듣는 영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더욱 은혜로운 것은 그날 경전회를 통해 얻은 분명한 깨달음이다. 듣지 않는 영혼, 우리를 배대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영혼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맘 속에 되새기며 기쁘고 겸손하게 이후의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포기하지 않고서 새롭게 훈련시켜 주시고,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며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

윤보경(외선부 3팀)

회개 후에 주시는 은총

선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 팀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 같았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과연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때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선교를 포기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팀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고, 부인할 것조차 없는 자비를 온전히 누르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가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매일 경전회 시간과 말씀묵상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다. 이윽할 때에는 찬양을 하며, 높은 산과 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리고 사역지에 도착하여 힘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 선교를 하려 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기뻐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와 진정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자 이후에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나의 기억에 안타까움으로 남은 영혼들이 있다. 어른들, 특히 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그분들의 연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인데, 그 어르신들은 가나안 공산체제 아래서 훈련을 받아서인지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만 바빠 보았다. 무를 따먹고 벼를 쌓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사역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주님은 80세 된 할아버지와 40대 아저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나에게는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앞으로도 그곳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이슬기(대학부 3팀)

2007년 제4차 CMTC 훈련 (교육과정: 2주간 정소: 김달리움)

시 간	3월 4일(다음 주일)
18:10~18:40	제1강 사도행전의 선교
18:40~19:10	제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시 간	3월 11일(주일)
18:10~18:40	제3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18:40~19:10	제4강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금번도 마지막 훈련이므로 전원 참석 요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4일(토) ~ 3월 1일(목)	대학부 4팀	지규성
2월 24일(토) ~ 3월 1일(목)	대학부 7팀	장경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5일(목) ~ 2월 23일(금)	청년1부 1팀	박광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 것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라서 처음 교회를 나온 이후 다른 사람의 눈에는 ‘탄탈대로’의 신앙을 걸어왔습니다. 나 역시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죄가 많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친구들에 비해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었고 타인들로부터 그 경건의 모양은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죄는 여지없이 발생되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척 했지만 인터넷 앞에서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허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인정을 받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 뒤에 돌아오는 깊은 실재를 맛볼 때에는 허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밀려올 때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하며 변명했습니다. 죄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20 말씀이 이해는 했지만 전심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번번히 죄를 짓기 어려울 때 때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주님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결국에 살았던 건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 없이 나를 세워 보려고 하는 노력은 철저한 자아추주로 열등감과 남을 판단하는 교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선편되는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죄 믿음을 비추셨습니다. 나의 정체는 죄 바로 사마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죄의 열매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인 그 뿌리, 즉 나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겨야 함을 말씀들 통해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기쁨이나 만족을 얻는 나는 죽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받아들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나를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때려 그 말씀은 제게 기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선이 아닌 전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계속 찾고 찾을 때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연합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조현준(대학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부인’(갈 2:20)에 대해 말씀이 선포되었던 지난 금요찬양집회 시간은 저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한 걸음 돌이켜볼 때, 처음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여 정말 가운데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을 해부 하루를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나를 에워쌀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인지하신 음성을 들려주었고, 또 다시 일어나 힘차게 뛰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반복되었고 막이고 기르시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결핍함이 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답함에 더욱 부끄러워 되었는데 이번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주님은 그 답답함, 그 결핍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부인’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뒤덮인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사시고 악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의우고 또 의우고, 쓰고 또 쓰면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 마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베푸는 머리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계속해서 제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매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 앞에 올 진짜 즐거움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두 팔 벌리고 맞으시고 그 수종정음은 길에서 멸망과 벗어 주 앞에 바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부인하고 그 험한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승근(청년1부)

가짜에서 진짜로!

저는 1년을 넘게 등록을 안 하고 드문드문 출현교회에 나왔고, 2,3년 후에나 등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새 신자로서 등록을 꺼린 이유는 제게는 향후 계획이 있는 일이 있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면 성도간의 교제와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 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생각이 많이 망설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이기는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스스로 등록하게 하였고, 새가 죽어갈수록 교제의 끝과부터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시기까지 정화하여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출현교회에 오기 전까지 교회와 하나님과는 멀어진 채 지냈습니다. 간간히 교회를 나가기 했지만, ‘여차라 나는 나이를 신자니까’라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여 세상에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지난 날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에게는 한 없는 자비를 바라건만, 저는 제게 상처준 마음을 2년이 넘도록 마음 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제 사람만큼은 용납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인격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용서받지 않을 품을 고수할 수 없어 2년 만에 제가 먼저 정화하기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일깨워 주셔서 왜 제가 아직까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넘어지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

습니다. 상대방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 실족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따뜻한 인품배터 같은 새가족양육부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한 말씀과 찬양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새가족양육부에서의 말씀과 교제가 지금은 그저 즐겁고 흥미만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왔던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라고 하면 제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전의 저에 비하면 지금은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태도도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 마음에 모시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알고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고 장래에 대한 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씀과 동시에 쫓겨나 천국 문을 앞에 두고 예복처럼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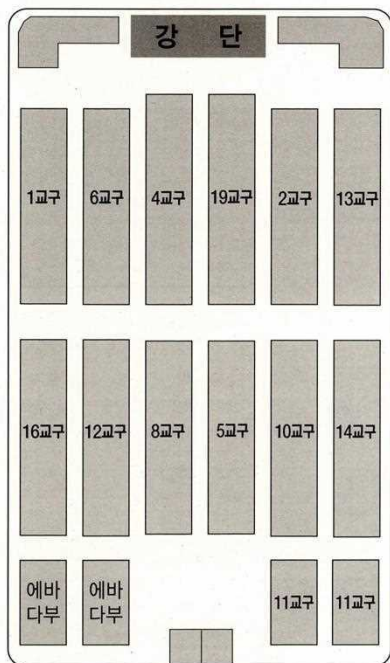
김정민(2006년 10월에 등록한 새가족, 새가족양육부)

금요찬양집회 교구 좌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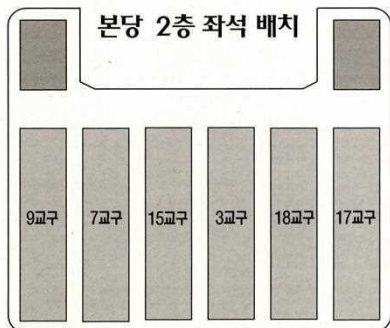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3월 2일)부터 실시

금요찬양집회의 교구별 좌석을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위치를 확인하여 이번 주(3월 2일)
금요찬양집회 시부터 변경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중현동산에서 알립니다!

중현동산은 천국을 소망하며 소전하신 성도들의 모지입니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중현동산이 더욱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복된 곳이 되도록 깨어 살필 것입니다.

이에 중현동산을 이용하시는 성도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10여 년 이상 방치된 분묘가 383기입니다. 심지어 15년 이상 방치된 분묘도 175기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분묘들로 인해서 동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번에 무연고 묘에 대한 일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현동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산 관리사무실로 오셔서 분묘가 무연고 처리 대상인지 모적부를 확인하시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교회 사무국 552-8200, 중현동산 관리사무실 031-764-9617)

수화 칼럼 ②

“손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1. 은혜



동작 설명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작. 왼 주먹 등에 오른손 바닥을 대고 어루만지듯이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다.

2. 구원



동작 설명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끝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아올린다.

3. 교회



동작 설명

두 손의 1지를 펴서 't'자로 맞대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4. 기도



동작 설명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이마에 댄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댄다.

【2007년 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수요 성경공부

교육기간: 3월 14일 ~ 5월 30일(12주간)

· 오후반 300 ~ 430

청세기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육관 307호)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육관 407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육관 507호)

· 저녁반 800 ~ 930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육관 307호)

교사 양성부

매 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3월 11일 ~ 5월 27일(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1호

찬양대원 양성부

매 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3월 11일 ~ 5월 27일(12주간) 장소: 베다니홀

중현전도대원 훈련

매 수요일 오후 130 ~ 230 교육기간: 3월 14일 ~ 5월 2일(8주간) 장소: 제1교육관 407호

『교육훈련원 학생모집 신청서』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0	바흐라	19	외선부	글노자(19)	289	이선자	13	장년1부	김선자(15)
281	김경호	19	대학부	강재구(4)	290	이해찬	3	대학부	이도현(3)
282	블리디미르	19	외선부	김철환(11)	291	정병선	19	대학부	정금수(18)
283	캐밀라	19	외선부	신은희(11)	292	이상록	8	장년2부	최지윤(10)
284	서윤정	15	장년2부		293	김은주	14	장년2부	이정택(14)
285	최석봉	19	청년1부	이정희(6)	294	임영신	19	청년1부	이상숙(4)
286	이광복	8	소망부	박형숙(8)	295	김혜숙	12	청년1부	이정애(14)
287	박승훈	19	청년1부	고희란(6)	296	이혜원	8	대학부	황옥영(8)
288	김복을	15	장년3부	이민숙(15)	297	김플란	18	장년3부	김철우(18)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

